

제작 | 노당문화예술단 일터

# 회나뭇골 사람들

원작 | 요산 김정환

2013. 10. 23(수) ▶ 11. 17(일)

평일 저녁 8시, 주말 오후 5시

(월화 휴관, 10월 30일(수)은 공연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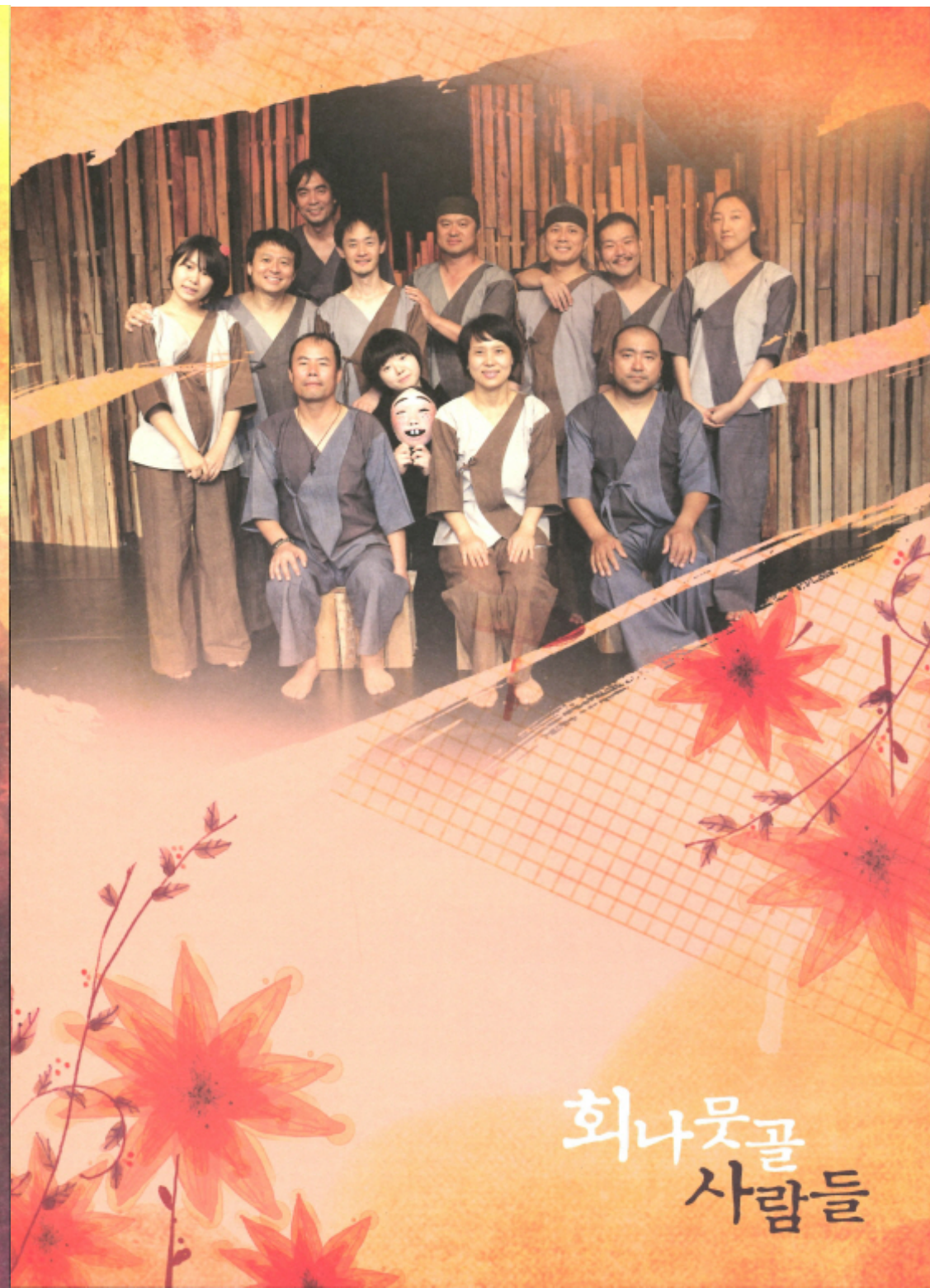
장 소 일터소극장 (시민회관 옆 / 문현역 1번출구 / 범일역 2번출구)

관람료 일반 20,000원 | 초중고생 15,000원 (예매할인 25%)

문의 051) 635-5370 | 011-9346-8982 | www.ilter.or.kr

후원 | (사)부산 민예총

본 공연은 2013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



# 회나뭇골 사람들

## 사람이나 나무나

연출 김선관

나무  
견지 않아도 새를 나비를 품는다.  
나무  
보지 않아도 햇살을 달빛을 품는다.  
나무  
외치지 않아도 바람을 비를 품는다.  
나무  
듣지 않아도 삶을 죽음을 품는다.

사람  
나무나 한가지다.

요산 김정환님의 소설 '회나뭇골 사람들'  
이 연극으로 만들어 질 수 있게 머릿줄을  
놓아 주신 이청산 선생님, 고맙습니다.

### 원작 요산 김정환

1908년 경남 동래군 북면 남산리(南山里)에서 김기수(金基壽) 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928년 동래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대원보통학교에서 교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이때 일본인들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조선인교원동맹을 조직하려다가 사전에 발각, 일본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후 1930년 일본 와세다 대학 부속 제일고등학교에서 수학하고, 1932년 귀국하였는데 양산 농민봉기 사건에 관련되어 다시 검거되었다.



1933년 남해 공립보통학교 교원으로 일하면서 농민문학에 뜻을 두었다고 알려진다. 1936년에 <조선일보>에 그의 단편이자 농민소설 <사하촌>이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사하촌>은 일제치하에서 핍박받는 농민의 모습과 친일파 승려의 횡포를 그린 소설로 지주와 소작농의 대립을 현실적으로 다루었다.

이후에도 <옥심이>(1936), <항유기>(1938), <기로>(1938), <낙일홍>(1940), <추산당과 결사관들>(1940), <묵은 자장가>(1941) 등의 단편소설을 많이 발표하였다. 1969년 단편 <수라도>로 한국문학상을 수상하였다. 단편집으로 <낙일홍>과 <인간단지>(1971)가 있다.



## 이야기

#0



아해야 아해야 느그 삼촌 어디갔노 느그 삼촌 어데갔나 말이다. 느그삼촌 어디갔노 장골산 목장밭에 콩대매러 가셨다가 반백년 지나도록 어찌이리 못오신고 나이나 너 나이나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만 넘어 갔네 아해야 아해야 너무 염려 말거래이 오느 못 오시면 내일은 반드시 오실께야 그러니 부디 몸 건강하시라고 기도를 많이 하려무나

#1



박선봉 : 보기는 멀. 백정이 보며 아나, 까막눈인데.  
송인덕 : 그라이 내가 글을 가르쳐 준다 안카나.  
박선봉 : 안 한다카이 자꾸 그러노. 다 늙어가 무슨 글이고, 니 지위 쓰기 싫어서 그까제.  
송인덕 : 나는 손재주가 있어가 머리도 좋을겐데.  
          갈 때 기다라도 까막눈은 면하는기 안 출나.  
박만수 : 글 모르고도 잘 살았다.

#2



큰선부 : 사발통문이 삼십 개는 모있다. 그라이 한 육백명은 넘게 올까다.  
명 달 : 육백명. 그러머 장 보러 오는 사람들하고 합 하모 천은 열추 넘겠네.  
명 달 : 새야 새야 피랑새야 녹두꽃에 앉지 마라.  
큰선부 :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창수 울고 간다.

#3



連絡兵 : 万歳事件の首謀者の朴ソンビとソングミョンドンダルが逃げる途中射殺されたそうです。  
藤田 : なに? 射殺しただと。ハッハハ。さすが大日本帝国の警察なるぞ。ハッハハハハ。やつらにこのことをいってやれ。  
박만수 : 이봐, 선봉이 너거 아들 선비하고 명달이가 도망가다가 총 맞아 죽었다카네. 프ッフ, 편히 자지만 잘랐네.

#4



굿쟁이 : 그만하길 다행이라캐야 되나. 범같은 자숙들을 저래 먼저 보냈뵘이  
누버 있어도 누버 있는기 아이다.  
굿쟁이2 : 우옛기나 봉화 니가 마음을 크게 묵어야 된데이. 가슴속에 바우덩이가  
들어 앉아있다 캐도 깃털 뿜쿠로 생각하고.  
굿쟁이 : 머 자꾸 걱정을 해뵘노. 그기야 지가 더 잘 알겐데.

#5



사모님1 : 아유, 드러버라 데쓰.  
사모님3 : 아유, 추주버라 데쓰.  
사모님2 : 아유, 드러버라추주버라 데쓰.

#6



송인덕 : 올개는 어깨골 황토밭에 고구마 할끼라카더마는 짚 되겠더나.  
박선봉 : 거는 망심이 좋아가 고구마는 지 알아서 글꼴데, 눈에 너락이 문제 아이가.  
암만캐도 물이 모지라지 싶네.  
송인덕 : 와 고 눈 우에 떼미에 땅을 한번 파보지, 물이 나오지 싶더마는.  
박선봉 : 파 보이 거는 물이 없고, 더 우에 찬물샘에서 고랑을 파 내리 와이 되겠더라.  
송인덕 : 찬물샘에서 너거 논까지는 안 마나, 혼자 되겠나.  
언제 팔끼고, 내 거들어 주꾸마.

#7

藤田 : でも,ここはブサンだ。釜は「かま」山は「やま」だろう。だから、お前の名字は「かまやま」にするのだ。  
박만수 : 여는 부산이다. 쪼자는 카마고 산자는 아마야이가 그라이 니성은 '카마야미'.  
藤田 : それから、お前はかわいいから、名前は美子(よしこ)にするがよい。  
박만수 : 그라고 넌 예쁘니까 이름은 오시코 美子다.

#8



용녀 : 작은선부아재는 올베미고, 나는 밤귀신이고.  
작은선부아재는 큰선부아재 보고 싶고, 나는 열마가 보고 싶고.  
용녀 : 회나무님, 회나무님, 오백년 살으신 회나무님, 우리 할매 눈 좀 보이게 해 주이소.  
우리 작은선부 아재도 머리가 원래대로 돌아오구로 좀 해 주이소. 원래는 작은 선부아재 머리가 억수로 좋았다 갑니다.

#9



송인덕 : 저 노루 새끼 동네에 차말로 물 집렀는갑다. 내가 저놈을 당장 직이별까다.  
박선봉 : 나 놈라. 저런 휘경이 같은 놈 하나 더 작인다고 세상이 바뀌겠나.  
봉화 : 바다 보이제.  
용녀 : 응.  
봉화 : 용녀야, 저 바다 맹꾸로 좋은 것도 없이 나쁜 것도 없이 다 풀어야 된데이.  
용녀 : 할매.

#10

아리아리 아리리 이 고개 올라가 아리 아리 아리리 회나무골 거린다.  
모진세월 나를 막아도 아픈 상처 가슴에 묻고 아리랑 아리랑 아리리.

## ■ 만든 이들

### 연출



연출/대본 김선권



작곡 조익래



안무 오다운



무대 남영우



의상 박정희

포스터 그림  
임경근일본어 번역감독  
안영철 교수님일본어 번역도움  
오오키와 이쿠에

아이 팻 이민주

### 연주



소리 양일동



장재희



김현일



강민정

### 출연



봉화 윤순심



인덕 배진만



용녀 이연주



용녀 이유경



선봉 조기정



작은 선부 하현관



후지다 서원오



만수 박령순

회나뭇골 아라리

중모리 곡: 예달

아 리 아 리 - 아 라 - 리  
 이 고 계 - 출 라 - 가  
 아 리 아 리 - 아 라 - 리  
 회 나 뭇 - 골 가 련 다  
 간 다 간 다 이 세 간 - 다  
 모 신 계 힘 나 활 락 아 도  
 간 다 간 다 흥 흥 흥 - 고  
 아 편 상 처 가 숨 에 불 고  
 아 리 랑 아 리 랑 아 리 리 - 요  
 회 나 뭇 골 - - 가 - 련 - 다

탱주자지 동강자지

작곡: 예달

♩ = 110

탱 주 자 지 - 동 강 자 지 -  
 탱 주 자 지 동 강 자 지 (탱 주 자 지 동 강 자 지) 기 미 년 예 활 락 목 고 (기 미 년 예 활 락 목 고)  
 울 배 미 는 - 방 구 의 고 - 개 의 궁 디 배 쪽 배 쪽 - -  
 박 수 무 담 - 부 담 박 수 - 눈 면 봉 사 다 리 쪽 - -  
 오 백 냇 살 - 회 나 부 장 - 내 랑 내 랑 내 랑 니 랑 - -

<p><b>기경훈</b></p> <p>용접에 재능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은 언제든지 불러주세요^^</p> <p>☎ 010-3563-7478</p>	<p><b>전민호</b></p> <p>메트라이프 생명보험사에서 공을 설계하고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p> <p>☎ 010-4945-1339</p>	<p><b>이규남</b></p> <p>대저 오리농장 (봉오리 영남오리, 호박오리, 슬라임 4급개량 식당 남동전문점)</p> <p>☎ 051-941-5245 ☎ 017-557-5245</p>	<p><b>구선희</b></p> <p>덕천동에서 나무 레스토랑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일터 공연 티켓 가지고 오시면 10%할인 및 기념품은 날에는 와인제공^^</p> <p>☎ 010-5109-9518</p>
<p><b>장현수</b></p> <p>기아자동차 부암 대리점에 근무 합니다. 자동차 구입에 최대한의 만족과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신용 100%보장~</p> <p>☎ 010-8512-9903</p>	<p><b>서정원</b></p> <p>전량 도서출판 부산 중구 중앙동 3가 12-1</p> <p>☎ 051-441-4445</p>	<p><b>최우석</b></p> <p>최우석 치과의원 부산 사하구 히단동 617-1</p> <p>☎ 051-202-2833</p>	<p><b>김선영</b></p> <p>디자인 붐김 부산 동구 방일동 830-240 노동복지회관 3층</p> <p>☎ 051-638-0777</p>
<p><b>오의석</b></p> <p>공예 인테리어 디자인 생활시공</p> <p>☎ 011-5719-1346</p>	<p>공예적인 안아-피어-조경 LAMPDA WOGYUN 생활공예 전문 클래스 생활공예 워크숍 전문 강사</p>	<p>거제항인회 회원에게는 VIP회원 혜택을 드립니다 전문 장례예식장 한중프리임 장례식장 24시간 상임전화 ☎ 305-4000</p>	

노동문화예술단 일터 / 일터소극장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일터의 후원회원이 되시면 일터에서 공연하는 공연입장권과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회원의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는 일터가 되겠습니다.  
자동이체와 CMS이체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계좌번호

농협 905-01-266658 김선관 / 부산은행 020-01-039718-4 김선관  
601-06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240번지 지하 일터소극장  
전화 : 051)635-5370 팩스 : 051)635-9220

